



## 인간의 미각은 문화를 지배한다

‘미각의 지배’ 존 앨런 지음

우리는 입으로 음식을 먹는가? 뇌로 음식을 먹는가? 어느 쪽이 맞는가. 입으로 음식을 먹지만 뇌로도 음식을 먹는다. 좀더 자세히보면 뇌로 문화를 먹는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다.

전자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 측면에, 후자는 기호나 문화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간의 삶과 음식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을 넘어 문화적인 현상과 관련돼 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신경문화인류학 교수인 존 앨런은 신간 ‘미각의 지배’에서 인간이 음식을 먹는 행동을 단순한 생존 본능으로 보는 시각에 반기를 든다. 인간이 음식을 먹는 방식과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진화시켰다고 본다. 고도로 발달한 두뇌활동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인간이 바삭한 음식에 끌리는 이유를 동일한 맥락으로 파악한다. 인간은 곤충을 먹던 시절부터 바삭바삭한 음식에 대한 본능이 생겼다. 불을 발명한 이후로 바삭한 음식의 조리가 가능해졌고 자연스레 ‘생득적 선호’도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바삭바삭’이라는 단어가 촉각과 청각을 자극, 음식 이름만 들어도 식욕 증가로 이어진다고 본다.

물론 일부 인지 능력이 발달한 동물도 먹는 과정을 즐긴다. 쾌락, 보상, 동기 등 기초적 인지 메커니즘은 어떤 동물이든 갖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맥락에서 식이행동을 발달시켜온 인간에 비하면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인간의 식단은 독특하다. 인간 외에도 잡식동물은 있



지만 인간의 잡식성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적 측면을 넘어선 암묵적, 명시적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문화적 개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만으로도 이 책이 포괄하는 지적 범위는 간단치 않다. 저자는 인지심리학, 현대생물학, 뇌과학, 문화인류학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지적 횡단을 시도한다.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씨름과 낚시로 엮여 음식문화라는 커다란 파노라마 안으로 편입된다. 책의 구성은 각 장마다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왜 사람들은 바삭한 음식에 끌리는가?” “인간은 어떻게 초잡식종이 되었는가?” “매운 맛은 고통인가, 아니면 쾌락인가?” 등의 질문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음식을 이해하는 방법, 즉 ‘음식이론’에 대한 탐구로 전이된다.

사람들은 음식의 맛, 냄새, 색깔, 소리를 통해 종합적으로 먹는 경험을 인식한다. 경험의 의미와 깊이 또는 동기와 기억,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인지 과정의 영향과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같은 음식이라도 결혼식상 피로연회에서 먹는 것과 시험장에서 먹는 것의 차이는 천양지차다.

결론적으로 책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세 가지로 집약된다. 음식, 마음, 문화. 결론적으로 음식은 마음이자 문화라는 것. 인간의 미각이 지배하는 것은 음식 너머의 마음과 문화라는 사실이다. <미디어월> 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용기가 바로 희망

‘조커와 나’

김중미 지음



사연을 통해 악하게만 보이던 조커의 숨겨진 모습이 들춰진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10대 소년들의 심리 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해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규가 조커가 아닌 본모습 ‘조커’

과 마주하는 장면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남발되는 벌점, 전학, 학교 폭력 대책 따위는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거대한 집단에서 겨우 몇 사람의 희소미나 용기가 폭력의 고리를 당장 끊을 수는 없지만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희소가 모이면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침비> 9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0대들이 처한 다양한 폭력의 양상을 작가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문장으로 풀어낸 소설이 나왔다. ‘앵이부리털 아이들’의 작가 김중미의 새 소설집 ‘조커와 나’가 2013년 창비청소년문학 시리즈 첫 권으로 출간되었다.

궁금증을 자아내는 표제작 ‘조커와 나’에는 희귀병을 앓는 장애인 소년 정우와 우연히 정우의 학교생활 도우미가 된 신규 그리고 정우를 괴롭히는 ‘조커’라는 별명의 친구 ‘조커’가 등장한다. 얼핏 장애인 소년과 비장애인의 소년의 우정 내지는 장애인 소년을 돕는 친구와 괴롭히는 친구의 선악 구도로 흐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정우의 죽음 이후 차츰차츰 밝혀지는 정우와 조커의

## 절망과 서러움 겪었던 우리들 삶에 위안을

‘래여애반다라’

이성복 지음



들 삶이라고 진단한다. 시집 제목을 ‘래여애반다라’로 잡은 연유다. 시인은 누구나 예외없이 생의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절망과 서러움의 과정을 담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한다.

발문을 쓴 홍경남씨는 “처음 ‘래여애반다라’를 읽을 때는 제가 나르는 흙이, 무거운 노동이 부처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를 다 읽고 난 지금은 부처가 되긴 힘들어 슬러 진흙탕이 되긴 상관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냥, 세상에 왔고 서러운데 벗어날 수 없는 서러움과 절망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시를 읽는다”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

<문학과지성사> 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80년대의 명시집 ‘뫼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의 시인 이성복이 돌아왔다. ‘아 입이 없는 것들’ 이후 십년 만에 일곱번째 시집 ‘래여애반다라’를 출간했다.

우선 낯선 제목부터 시선을 끈다. 웬만큼 시에 익숙한 독자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래여애반다라’는 신라시대 향가 ‘풍요’ ‘공덕가’의 한 구절로 이 여섯 글자 이루는 ‘오다, 서럽더라’로 풀이된다. 신라인들이 불상을 빚기 위해 흙을 나르면서 그 공덕으로 세상살이의 고통과 서러움을 위안하고자 불렀던 노래다.

시인은 “이곳에 와서(來), 갈아지러 하다가(如), 슬픔을 보고(哀), 맞서 대들다가(反), 많은 일을 겪고(多), 비단처럼 펼쳐지고(如) 마는 것(羅)”이 바로 우리

## ‘인상’ 자신의 얼굴을 되돌아본다

‘얼굴 읽어주는...’

주선희·진세훈 엮음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 인상 바꾸주는 남자’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낱말이 풀이한 책이다.

대한민국 1호 인상학 박사 주선희와 성형외과 의사 진세훈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얼굴을 분석하는 독특한 구성이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 주선희 교수가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인상을 읽어 내려 간다면, ‘인상 바꾸주는 남자’ 진

세훈 원장은 인상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를 성형수술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김수현, 김태희, 싸이, 오바마, 김기덕 등 국내외를 총망라해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유명인 36명의 얼굴을 살펴봤다. 이마와 눈썹, 눈, 코와 광대, 입과 턱 총 네 개의 장으로 나눠 그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인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준다. <오픈하우스> 1만8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 한국건축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나

‘한국 현대건축의...’ <1·2권>

임석재 지음



“건축은 참으로 묘하다. 건축가가 아무리 시대를 앞서 훌륭한 생각과 작품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에는 동시대의 건축 수준, 좀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동시대의 총체적인 문화 특성이 조금의 가감도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

건축사학자 임석재 교수가 쓴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은 한국 현대건축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1권에서는 고층 건물의 수직선이 지배하는 대도시의 문제와 이에 반작

용으로 대동된 수평선 운동, 나아가 자본주의가 낳은 하이테크 양식과 대형 공간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다.

2권에서는 21명의 건축가가 남긴 건물들을 바탕으로 도시 건축 운동, 상대주의의 공간, 현대 합리주의 등의 문제를 짚었다. 현대건축을 이끌어온 핵심인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저자는 인문사회학적, 예술적, 문화적 해석의 확장을 시도한다. <인물과사상사> 2권 1만5000원, 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GMO, 우리는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생명공학 소비시대...’

김훈기 지음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인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복제 쇠고기 전파되고 있다. 누구도 GMO와 복제 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 김훈기씨가 GMO와 복제 쇠고기를 둘러싼 쟁점을 다룬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출간했다.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으면서 GMO는 미래 부족한 식량자원의 대안으로 인식돼 왔다. 국내에서도 16년 전부터 GMO를 먹기 시작하면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환경 위해

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부 단체와 매스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정작 정부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책은 이러한 한국의 생명공학 식품의 실상을 풍부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날카롭게 분석한다. GMO 기술의 탄생과 응용, 실질적 동등성과 위해성 논란, 재배와 상업화, 수출과 수입, GM농산물과 복제 쇠고기, 슈퍼연어 등 GMO와 복제 동물을 둘러싼 모든 측면을 과학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저자는 책의 제목처럼 GMO에 대한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하며, 또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동아시아> 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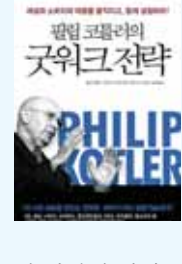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신간

▲무덤나무 숲, 그대=1985년 ‘남십리’ 창립 동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박두규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섬진강변에 집을 짓고, 뒷밭을 일구고, 밥을 지어 먹고, 섬진강변에서 수면에 스쳐가는 바람을 담은 시들이 깊이 있게 흐르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리산을 오르고, 생명평화결사운동을 하는 시인은 “나이 50을 넘어서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입혀 주신 배냇저고리를 벗고 싶었다”고 자서(自書)에서 고백한다. <문학들> 1만원

▲참스키 知的 향연=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가 근 50년에 걸쳐 발표한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을 가려 뽑아 모았다. 참스키 사상을 포괄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첫 저작선집이다. 1959년 언어학계에 충격을 줬던 ‘B.F. 스키너의 언어 행동에 대한 서평’을 비롯해 ‘통사론의 양상 서문’ 등 7편의 언어학 관련 저작과 ‘지식인의 책무’, ‘저항에 대하여’ 등 미국의 국내외 정국을 다룬 정치평론 18편까지 총 25편을 포함했다. <시대의창> 4만5000원

▲삼국지 인물 108인전=황건적의 총수 ‘장각’, 하늘이 내린 삼국지 최고의 영웅 ‘조조’, 조조의 명실상부한 라이벌 ‘원소’... 동양 최초로 삼국지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활약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삼국지 인물 권정이다. 저자 최용현은 20여년 동안 각종 언론매체에 인물론을 연재해 왔다. 이 가운데 무거운 경증을 고려하고 인물 성격을 분류해 108명에 이르는 방대한 인물들을



위여 책으로 출간했다. <이성복> 1만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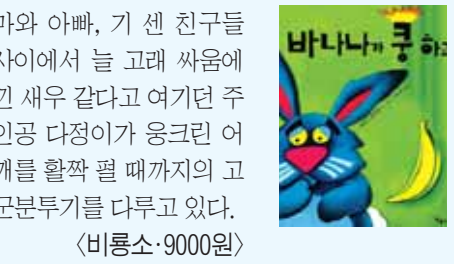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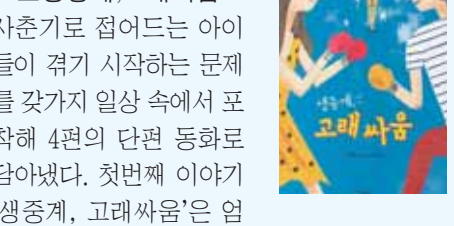
▲대한민국 승부사들=홍명보, 허정민, 김인식, 유재하 등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최고인 우리나라 스포츠 명감독 10인의 리더십을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출입기자들이 집중 분석했다. 이 리더십은 명감독이 술한 승부의 순간을 헤쳐오면서 몸으로 터득한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스포츠 현장은 물론 독자의 현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한 수의 가르침이다. <꿈의지도> 1만3000원

▲한 번 해도 될까요?=평생 동안 900명이 넘는 파트너와 한 침대에 올랐던 여인. 그녀의 이름은 셰릴 코헨 그린. 직업은 의뢰인의 성적 고민을 대화와 실습을 통해 해결해 주는 ‘대리 파트너(surrogate partner)’다. ‘한 번 해도 될까요?’-세션,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은 셰릴이 40년 동안 남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만난 의뢰인들의 사연과, 이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 이후의 자신의 인생사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회고록이다. <다빈> 1만4000원

▲필립 코틀러의 굿워크 전략=세계적 마케팅 대가인 필립 코틀러와 저자들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마케팅인 코즈마케팅(공익연계마케팅) 및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사업의 실행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기업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이윤과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찾도록 도와준다.<와이즈베리> 1만6000원



▲생중계, 고래 싸움 = 사춘기로 접어드는 아이들이 겪기 시작하는 문제를 갖가지 일상 속에서 포착해 4편의 단편 동화로 담아냈다. 첫번째 이야기 ‘생중계, 고래 싸움’은 엄마와 아빠, 기센 친구들과 사이에서 늘 고래 싸움에 킁 새우 같다고 여기던 주인공 다정이가 용키린 어개를 활짝 펼 때까지의 고군분투기를 다루고 있다. <비룡소> 9000원



▲신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농차 이야기 =신라 흥덕왕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진 자랑스런 우리나라 농차를 이야기 한 그림책이다. TV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했던 파루(권란드), 브로닌(남아공), 사유리(일본) 등 11명의 미녀들이 ‘하동 야생차 문화 축제’에 참가한 체험사례를 담아내 어린이들의 흥미를 끈다. <아람> 1만원

▲바나나 쿵 하고=세계 각지의 신화나 민담을 찾아내 그림책으로 만드는 작가 제럴드 맥더머티가 만들어낸 국내 마지막 책이다. 투병 중 그림책 작업을 해오던 작가는 현복스와 ‘바



나나가 쿵 하고’의 조울 작업을 하는 과정에 지난 해 12월 타계했다. 겁 많은 토끼가 맑고 고운 어느 날, 초록 잎이 아름다운 나무 아래서 나른하게 상상을 즐기던 나른한 어린우화를 재미나게 표현했다. <현복스> 1만2000원

▲대칭놀이는 미국 교실에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로렌 리더 작가의 지식 그림책 시리즈, ‘대칭놀이’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에서 대칭을 찾아내고 자연스럽게 대칭에 대해 알게 해 준다. 지식을 익히기 위한 지루한 공부책이 아닌, 그림만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로 통한다. <미래아이> 1만원

▲미리 보는 초등 수학 교과서=올해부터 바뀌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수학 교과서에서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수학을 공부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수학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레가 슈미는 도서관> 1만1000원

## 어린이 책꽂이